



# 짱뚱이 어린이도서관

#인천 연수구 #임대료, 공과금 지원

##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짱뚱이 어린이도서관

짱뚱이 어린이도서관은 늘푸른 교실 지역아동센터에 후원 도서가 기증되며, 이 도서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는 뜻이 모여 2003년 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짱뚱이의 나의 살던 고향은』(오진희 지은이, 신영식 그림 | 파랑새어린이 | 1999)의 주인공 짱뚱이처럼 어린이들이 재밌고 즐겁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을 도서관 이름에 담아 시작했습니다.

## 마을 속의 도서관, 마을의 사랑방인 짱뚱이 어린이도서관

짱뚱이 어린이도서관은 마을 속의 도서관, 마을 사랑방 역할을 중심에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역사 알기와 마을의 옛이야기를 알리는 활동을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을 마을 활동가로 키우며 어린이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짱뽕이 어린이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인천의 작은도서관 회의 자리에서 각 도서관의 재정을 공유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기고도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 도서관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누가 나이가 많은지 내기를 하면서 나이가 제일 많은 동물이 떡을 먹기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네 도서관이 정말 가난한지 내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지 얼마 되지 않아 긴급지원119사업 공모가 나오고 짱뽕이가 그 지원을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의 재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짱뽕이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 매 달 5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매달 들어가는 임대료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이리다 도서관 월세도 내지 못해 문 닫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건비 마련은 그 다음 차례입니다. 올해도 지원 사업을 열심히 써내고 지원 사업에 도서관 활동을 충실히 담아내고 그 사업을 통해 많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공기관에서의 지원은 책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긴급지원119사업의 임대료 지원은 재정이 어려운 도서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여러 사업에 공모해 지원을 받으며, 작은도서관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원 덕분에 힘내서 마을 활동을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지원119사업으로 짱뽕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매우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도서관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마을 교사로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마을 교사로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들과 교육도 하고 이 분들의 재능을 나누는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재주를 가진 분들이 서로 연구하고 자기의 재주를 나누며 활동했지요. 재능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재주 많은 곶'이라는 동아리를 재밌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옷도 만들고, 자수도 배우고, 궁궐 답사를 다녀와 북아트도 만든답니다. 작품을 만들고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자기가 가진 재주를 나누어 더 즐거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여 마을 활동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 짱뚱이 어린이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많은 여성들이 짱뚱이에서 공부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 아이에게 좋은 책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품앗이 교육 활동을 하면서 마을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눈을 갖게 되는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을 어린이들에게 마을의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들 동아리 '개구리네 한술밥'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된 활동가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짱뚱이 도서관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를 보고 관계하며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나눔가게 '들락날락'을 통해 주민들을 만나고, 책 동아리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교사로서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도서관의 여러 활동들이 마을 속으로 더 들어가 새로운 마을 분들을 많이 만나고 짱뚱이가 더 북적거릴 수 있는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세상에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인생의 희열을 쫓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